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49

2025 가을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잉어과

크기 몸 길이는 약 6~8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은색이며, 등쪽은 암갈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이다. 몸 가운데에는 진한 갈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고, 각 비늘 끝에는 초승달 모양의 진한 무늬가 있다.

주요 형질 몸은 길고 약간 납작하다. 주둥이는 뾰족하며 입은 작고 위로 향해있다. 입수염은 없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서식지 하천이나 저수지의 깊지 않은 곳, 농수로 등 수면 가까이에서 떼지어 산다.

먹이습성 잡식성으로 부착조류, 수초, 수서곤충 등을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4~6월로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 표면에 산란하며, 방정한 수컷은 그 주변을 돌면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산란장을 지킨다. 번식기에 수컷의 몸은 검은색으로 어두워지고, 주둥이 주변에 뾰족한 돌기가 돋는다. 암컷은 노란색을 많이 띤다.

CONTENTS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92
강보승 K-water 물환경계획처장

09 실개천과 금강 - 15

15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3

21 정책&이슈 대청호 녹조문제

24 대청호 포럼

26 관계자 워크숍

28 네트워크 사업보고

34 대청호뉴스&뉴스

36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38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9

발행일 2025. 9. 15.
발행인 고창섭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육정임,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강보식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가을빛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 대청호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길이 있었기에 대청호는 더욱 맑고 깨끗함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행 속에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호수를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맺은 20년의 인연

강보승 K-water 물환경계획처장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2024. 12　물환경계획처장
2023. 12　진도수도지사 지사장
2021. 12　금강유역관리처 물환경부장
2020. 01　낙동강물관리처 물환경센터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K-water 강보승 물환경계획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였다.

"이 단체가 5년은 갈 수 있을까?"

대청호, 나의 기억 속 풍경

대청호는 제 고향과도 연결된 곳입니다. 충북 옥천 출신인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니고, 친구들과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청댐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상류와 하류, 옥천, 대전 동구와 대덕구 각 지역마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란 덕분에 지금 제 자리에서 대청호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첫 시작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지 6년 차 되던 해, 본사 발령과 함께 처음 맡은 업무가 바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대청댐에서 전례 없는 조류 '대발생'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조류 세포가 번식해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환경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모두 충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갈등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는 대화조차 어려운 관계였지만, 대청호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목표 아래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접점을 만드는 일을 맡았고, 수많은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2002년 4월 11일, 마침내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 세월의 무게

창립 직후 저는 3년 정도 본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본부와 거리가 생기긴 했지만, 20주년이 되던 해 정책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옛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은 지금은 국회의원, 연구소장, 기관 책임자로 성장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운동본부가 창립된 후 “이 단체가 과연 5년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사회적 이슈도 늘 변하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20년을 넘어 24년째 이어져 오는 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성장했고, 또 본부가 여전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보람입니다.

다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그리고 녹조 문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물환경계획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녹조 저감, 수생태 관리, 수계관리기금 사업 등을 담당하는 만큼, 본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녹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녹조가 발생하면 단순히 물을 뿌리고 접근을 막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입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천천과 품곡천 같은 유입 하천에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발생한 녹조는 펌핑 설비나 배형 트레이를 이용해 직접 수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수온과 수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 녹조가 번성할지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쓰레기와 오염원을 줄여야 하고, 지자체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본부는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의 과제와 홍보의 중요성

저는 늘 “새로운 아이템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랑 정화, 쓰레기 줄이기, 비료 사용 절감, 합성세제 줄이기 같은 단순한 활동도 꾸준히 10년, 20년 이어간다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생활 속 실천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것이 진짜 힘이지요.

그리고 본부가 앞으로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홍보와 인지도입니다. 대청호 물을 마시는 450만 시민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본부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본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수록, 활동의 힘도 커지고,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시민 대부분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대청호 가족들에게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창립을 맡으면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식지를 통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했던 인연들을 언젠가 다시 한 번 직접 만나 예전의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묵묵히 대청호를 지켜주고 계신 사무처와 활동가분들, 그리고 회원 마을과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본부가 더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배오개천 이야기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이현동산성

신탄진에서 판암동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대청호 근처에 '이현동'이 나온다. 여기서 내려 우측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현동산성'이 나온다. 산성의 안내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남북방향의 봉우리 두 개를 중심으로 말안장 모양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테를 두르듯 돌을 쌓아 만든 백제시대 성이다. 성의 둘레는 300m 정도이며, 성벽은 안쪽 경사면을 깎아내고 바깥쪽에만 돌을 쌓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데, 성벽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다. 북벽은 바깥쪽 능선이 완만하여 석루를 높이 쌓아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석루 끝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흙을 파내어 해자를 만들었다. 성돌은 계족산성의 것과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여 쌓았는데, 쌓는 방식은 일정한 규칙성이 없다. 성내 시설로는 동벽과 서벽 사이의 평탄한 곳에 있는 건물터와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에 창고

배오개천 상류

사방댐

나 봉수대로 추정되는 둥근 모양의 구덩이가 있다. 계족산성의 북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쌓았다.'

이 산성에서 빗물이 이현동 쪽으로 떨어지면 산성 아래 작은 실개천이 만들어진다. '배오개천'이다. 아랫마을에는 예로부터 배 농사를 많이 하여 배나무 고개가 있고 이것이 배고개로 변하여 뒤에 '배오개'가 되었다. 그래서 실개천 이름이 배오개천이다. 한자로 이현(梨峴)동이 되었다.

최상류 발원지에는 경사가 급하고 바위와 돌이 많아 물이 모이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잎갈나무, 떡갈나무, 칡 등이 많아 숲을 이루고 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집들이 나오고 급경사지가 나오는데 이곳에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다. 사방댐은 홍수 시 실개천을 보호하

실개천 안에 피가 자란다

맹꽁이 산란지

고 물의 흐름을 약화시켜 피해를 방지하며 평소에는 물이 고여 있어 주변에 사는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목욕을 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댐 주변은 급경사로 많은 비가 올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푯말이 있다. 사방댐과 언덕에는 환삼덩굴이 덮혀있다.

요즘, 이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효소액 만들기, 대청호 윙윙꿀벌식당 등이 있다. 농산물로는 벼, 고추, 참깨, 들깨등이 있으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대청호가 보이며 마을 가운데 배오개천이 흐르며, 하천 옆에는 다랑논이 있어 참으로 포근한 마을이다. 골목 골목에는 마을을 알리는 설치작품이 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실개천이 조금 넓어진다.

다락논 전경

더 맑은 이현마을

양쪽에는 길이 있고 길옆에는 논이 있으며 실개천 안쪽에는 물을 좋아하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자라는 식물을 가만히 보니 '피'다. 피는 벼와 함께 벼과 식물로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심어졌다고 한다. 실개천의 가운데 피가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물이 흐르면서 정화도 해주고,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 개구리들의 은신처가 되며 많은 곤충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논과 천 옆에 버드나무 군락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맹꽁이들이 나타나 울고 알을 넣고 올챙이가 되어 살아가는 곳이다. 맹꽁이가 있다는 것은 흙과 물과 공기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다. 맹꽁이는 평소 땅속에서 살다가 장마철에 울고 알을 낳으며 다시 땅속에서 살아

이현동 생태습지

인간사다리

간다. 환경지표종인 것이다.

실개천 옆에는 층층의 다락논이 보인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조금의 땅만 있으면 논과 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심으며 살아왔다. 농사의 가장 기본은 흙과 물이다. 이런 실개천을 돌로 살짝 막아 보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했다. 돌보야말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자연 이용법이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다. 하늘은 더없이 맑아 푸르름을 자랑하고, 하얀 구름이 수를 놓고 있다. 이곳이 하늘 아래 힐링캠프 같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넓은 이현동 갈대습지가 나온다. 물이 습지를 통과하면 깨끗해진다. 습지 가운데는 작은 데크가 있고, 안에는 갈대, 달뿌리풀, 애기부들이 많이 보인다. 아래를 보니 물이 보인다. 개

대청호

구리 소리도 들린다. 옴개구리 소리다.

과거에는 실개천의 둑이 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큰 돌로 쌓여 있다. 큰 돌 둑은 홍수를 막아주고 물흐름을 좋게 하지만 하천과 논을 단절시킨다. 동물들이 하천 안쪽으로 들어 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사람도 출입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나들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했다. 이 사다리는 사람들이 쉽게 나들 수 있지만, 동물은 이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야말로 '인간사다리'인 것이다. 조금 더 구조를 개선하여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 특히 요즘 많이 보이는 고라니, 그리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개구리들에게 사다리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면 '생태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멀리 내려온 물은 이제 대청호가 눈앞에 보인다. 대청호로 가기 전 마지막 정화식물인 버드나무 군락을 통과한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식물이다. 항상 물가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버드나무에는 많은 약용성분이 있다고 한다.

물은 흘러 흘러 대청호에 다다랐다. 대청호에 모여 수문을 통과하여 아래로 아래로 멀리 서해로 갈 것이다.

산성, 실개천, 다락논, 습지 그리고 대청호를 품고 있는 이현동.

이현동에는 푸른 희망이 보인다.

물 환경과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

글_**여규용** 대청호 해설사

대청호 상류 쪽에 가면 호수를 떠도는 쓰레기 무리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여름철 장마 시기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게 된다. 우리는 하루에 참 많은 쓰레기들을 무심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쓰레게 양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각자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현재 생활 습관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줄여질 것이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그동안 대청호를 둘러 보며 많은 활동을 하였고 더불어 생각도 많아졌는데 그러한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청호 쓰레기

우리는 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물이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여 차를 마시고, 샤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동안 수도꼭지를 열고 닫는 횟수는 수십 번에 달한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물은 늘 곁에 있는 존재이고, 언제나 흘러나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피상적이다. 호수와 강이 탁해지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시가 침수되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순간적인 재난이나 관리 부실의 문제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물 환경은 단순히 '깨끗하다, 더럽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생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 나는 종종 대청호를 걸으며 생각한다. 세종과 충청 지역을 지나는 길목에 자리한 이 거대한 호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식수원이자,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호수이다. 그러나 동시에 녹조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느끼곤 한다. 우리가 물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지 대청호를 돌아보며 드는 생각이다.

대청호의 풍경은 겉으로 보면 고요하다. 잔잔한 수면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철새들이 날아들며, 사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들이 드러난다. 여름이면 호수는 녹조로 푸른빛을 잃고, 비가 많이 오면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염물질로 수질이 악화된다. 수돗물의 냄새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내 고향의 하천을 떠올린다. 지금 추억 속의 그 하천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나는 맑은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손바닥으로 피라미를 잡으려 하고, 돌 밑에서 가재를 찾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콘크리트 제방과 도로로 옛 정취를 잃었다. 물길은 사라졌고, 내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풍덩거리며 뛰어놀던 맑은 물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은 언제나 곁에 있다'고 믿는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마트에 가면 생수가 넘쳐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이 어디서 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물 환경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심함'이고, 다른 하나는 '막연한 불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무심히 사용한다. 세제를 아낌없이 쓰고,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며, 필요 이상으로 물을 틀어놓는다. 물 부족이란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도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인식도 있다. 생수를 고를 때 '어느 지역 물인지'를 따지고, 정수기를 설치하며, 수돗물

대청호 쓰레기

대청호 쓰레기

대청호 쓰레기

대청호 녹조

의 냄새를 걱정한다. 이는 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불안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물 절약이나 오염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물'을 소비하는 데 그친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변화도 있다. 학교나 마을에서 진행되는 환경 교육, 아이들이 참여하는 '물 지킴이 캠페인', 일부 시민단체의 하천 정화 활동 등은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 이 변화들은 아직 크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의 물 환경 인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속히 시민들의 인식, 무심함과 불안 사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즈음 날씨 문제를 경험할 때 물 환경과 기후위기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 환경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어떤 해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과 식수가 위협받고, 또 어떤 해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와 마을이 침수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물 폭탄'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물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반대로 겨울철과 봄철의 가뭄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는 모두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물 순환의 불균형 때문이다. 물은 또한 오염의 문제와 직결된다.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생활하수 속 세제와 미세플라스틱, 농업에서 쓰이는 비료와 농약은 결국 강과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이 오염물질은 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다시 정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수로 돌아온다.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무관심한 것인지 정말로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 스스로 돌아 보고 반성할 때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과 실천을 생각해 보자. 물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도 쉽게 잊는다. 물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내고, 오염시키며, 낭비한다. 그러나 대청호의 녹조, 고향 하천의 소멸,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물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이제 우리는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습관, 세제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선택, 아이들과 함께 하천을 청소하며 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경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일 때, 물 환경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언젠가 대청호가 다시 맑은 얼굴을 되찾고, 아이들이 고향의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물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강과 호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석호리 수거장 호수

대청호의 현실을 보고 싶다면 물문화관 쪽이 아니고 명상정원이 있는 곳도 아니고 더 상류 쪽으로 나가보라고 하고 싶다. 위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소담악 있는 곳이나 추소리 로나가 보면 이번 장마에 떠내려 온 온갖 쓰레기들을 볼 수 있다. 차단 펜스를 치고 하류 쪽으로 떠내려 오지 못하게 해서 댐 하류쪽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를 보며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환경은 누가 지켜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 가야 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환경 보호가 아닌 실제로 지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물 문제를 거론하지만 과연 우리가 물에 대한 인식이 말로 하는 그것만큼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문해 본다.

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할 때가 되었고 변화해야 한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청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물그릇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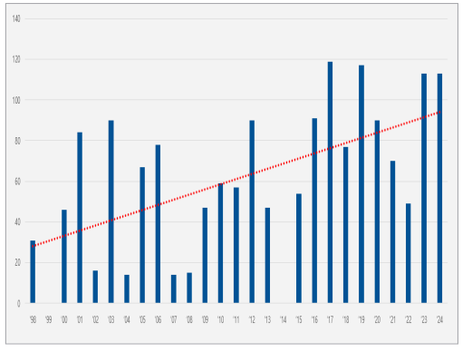
대청호 녹조발생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K-water 대청댐지사의 사투

글_**장봉호** K-water 대청댐지사 환경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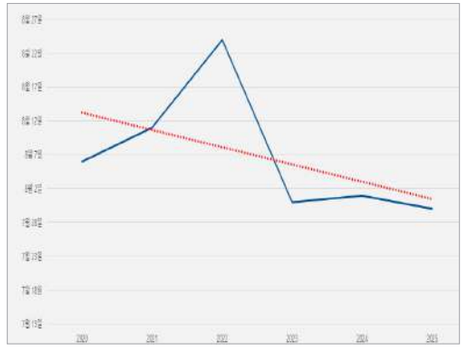
대전, 세종,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 450만 국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충청권 12개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식수원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보물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라는 불청객이 대청호를 찾아왔다. 정부에서는 호소.하천 등의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단계별 경보를 통해 수질 관리와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대청호와 팔당호를 시작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핵심 목표는 수질오염 사전 예방 →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이다.

녹조(綠藻, Algal bloom)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다 성장하여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녹조 현상은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 번째 햇빛, 녹조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기에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다. 두 번째 수온,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청호의 수온도 함께 상승한다. 수온이 20도 이상이 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25도 이상이면 활발한 녹조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잦아 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청호 수온도 평년보다 빠르게 30도를 넘어섰다. 세 번째로 영양염류 즉 녹조가 먹이로 사용하는 질소(N), 인(P) 이다. 질소(N)와 인(P)은 강우에 의해 오염물질과 함께 대청호로 들어온다. 최근에는 잦은 집중강우로 인해 대청호 유역에 산재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청호 녹조 발생은 어떠한 상황일까? 올해 대청호 조류경보제 발령은 7월31일 문의 수역 “관심”단계를 시작으로 8월7일 회남수역 “관심”단계 발령이 되었고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8월14일 문의, 회남수역에 “경계”단계 발령이 되었다. 반면 추동수역은 상대적으로 녹조가 적게 발생하여 8월21일 ”관심”단계가 발령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청호 조류경보제 발령일수는 1998년 조류경보제 시행 이후 199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었다. 조류경보제 발령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5개년을 보더라도 대청호 조류경보제 발령일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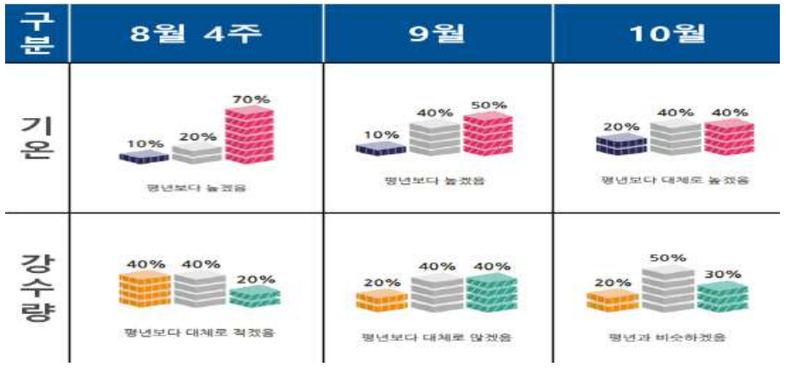


년도별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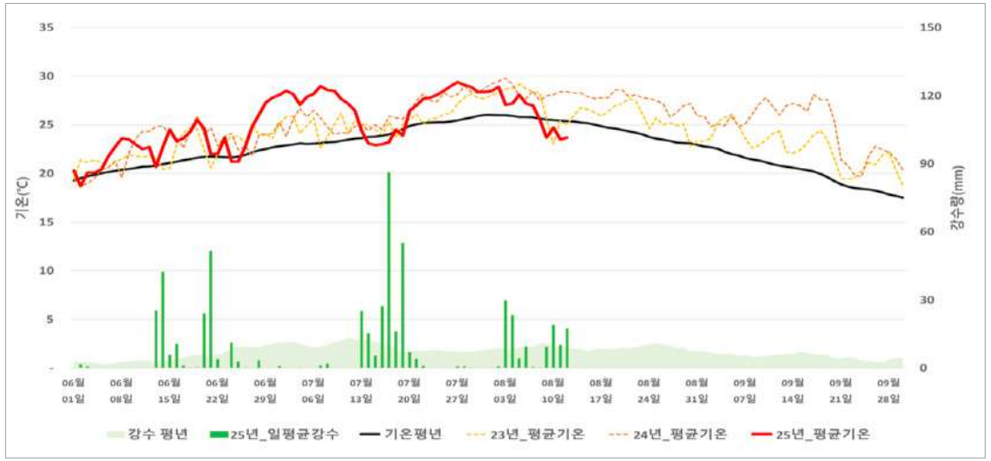
최근 5개년 조류경보제 발령일

녹조발생 전망 또한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기상청 예보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0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보 등 유해남조류(녹조)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11월 늦가을까지 녹조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기온과 올해 강우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상기온에 의한 폭염이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장마가 시작한 6월 중순의 기온은 최근 2년의 평균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일찍 장마가 종료된 이후 6월말~7월초의 기온은 최근 2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폭염이 지속되었고, 또다시 2번째 장마가 7월중순 끝나고 나서 폭염은 다시 찾아왔다. 그만큼 녹조발생의 조건은 점점 양호해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대청호에 녹조발생과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면 가장 긴장하고 분주해지는 곳은 K-water 대청댐지사이다. 대청댐지사에서는 녹조발생 저감과 발생한 녹조제거를 위해 크게 3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1단계는 대청호 넓은 유역(3,204㎢)에 대하여 오염원 점검 및 제거이다. 이러한 오염원 저감 노력은 금강유역환경청,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K-water 대청댐지사가 합동으로 장



강우량&기온

마가 오기 전에 유역에 산재 되어 있는 오염물질 즉 가축분뇨, 농업폐기물, 하수처리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거하면서 강우 시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고 있다. 또 하나 조류경보제 발령 단계별 각 기관의 역할과 방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관계기관 합동 녹조 방제 훈련이다. 올해도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서화천 수역에서 6월17일 환경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25년 관계기관 합동 대청호 녹조 방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2단계로 대청호 내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문의수역과 추동수역 그리고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하여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한 수면 포기기, 조류차단막, 물순환장치 등 130대(K-water 80대, 대전시 50대)를 가동 운영하면서 녹조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만드는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필사의 노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3단계는 발생한 녹조를 대청호 물 밖으로 걷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녹조제거 설비는 올해 총7대를 운영하고 있다. 대청호 72㎢의 방대한 면적에 발생한 녹조를 녹조제거설비 7대로 모두 걷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물을 취수하는 취수원과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녹조제거설비는 녹조발생 상황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녹조가 발생한 물을 시간당 100~200㎥ 흡입하여 평균적으로 하루 한 대당 약5톤의 녹조를 수거하고 있다. 대청호 내 총7대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루 약 35~40톤의 녹조를 수거하고 있으며, 폭염과 따가운 햇빛 또한 이러한 K-water 대청댐지사의 노력을 막을 수는 없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K-water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K-water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녹조발생의 근본 원인인 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선봉에 K-water가 있다.

“대청호의 미래, 우리 함께 고민하다”

- 2025년 제1차 대청호 포럼 개최 -

글_**강보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기획부장

대청호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는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는 지난 7월 10일(목),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제1차 대청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청호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질 보전과 민·관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제 발표에 이어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고창섭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동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의 환영사, 이제승 옥천군 부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최충식 (사)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연구소장과 이민수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계획처 차장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주제 발표를 맡아 대청호 보전의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패널 토론에서는 맹승진 정책연구위원장(충북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총 6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손영상 대전 동구청 복지환경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속에서,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옥천군 환경과 서은주 수계관리팀장은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의 이건희 상임이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마을 주민과 협력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순화 유역계획과장은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축소에 아쉬움을 표하며, “민·관이 함께 물 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원대학교의 지역건설공학과 김종건 교수는 “농업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도일보의 임병안 기자는 빅카인즈의 검색키워드 분석을 통해 대청호와 관련된 연도별 키워드 동향을 공유하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인력 기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자 외 청중들은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정부, 민간단체, 중앙정부 간 역할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지난 20여 년간의 활동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번 1차 대청호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매우 유의미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니 모두가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

“성과지표로 보는 대청호 보전 운동”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2025년 8월 26일 오후 2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성과향상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이 옥천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본부의 성과를 높이고, 조직과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정책연구위원인 김종남 책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다.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보은, 대전, 청주, 천안아산 등 8개 지역네트워크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해설사,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총30여명이 참여하여 자기소개와 함께 각자의 역할과 활동 경험, 대청호 보전운동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

워크숍은 전체 인원을 네 개의 모둠으로 구성하고,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스티커 붙이기와 포스트잇에 의견을 붙이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조직의 거버넌스를 민간과 공공 부문 참여, 네트워크 및 본부 차원에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현재 활동 목표가 충분한지, 필요한 경우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인력, 재정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각 모둠에서는 진행자와 기록자를 정하고, 포스트잇과 점수표를 활용해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하였다.

김종남 책임연구원은 기존 성과 지표 24개를 설명하며, 실무 부담과 지역 요청을 고려해 일부 지표를 조정하고 10개를 삭제하며, 오늘 논의에서 추가로 4개를 조정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지표는 대청호 수질과 생태계 개선, 주민 인식과 실천 활동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조사 결과 활동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높지 않았다. 특히 하류 지역 네트워크 활동, 주민 교류, 로컬푸드 직거래, 물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성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 자원 확보, 조직 운영 체계, 참여 유익성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가 강조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설립 목적과 활동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성과 지표와 연계된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해보았다. 또한 조직 내부 거버넌스 개선, 회원 확대 방안, 교육·홍보위원회 설립, 하류 지역 네트워크 운영 개선 등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과 조직 운영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별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된 성과지표 보고서가 연말이면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성과를 확인하고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 네트워크

올해도 무주는 열심히!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무주네트워크에서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 회원마을 가꾸기 사업

회원마을 가운데 중 4개 마을을 선정하여 펼쳐진 사업으로 환경교육사업인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주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할 때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환경교육을 통해 분류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전했다. 마을 앞 하천 정화 활동과 하천에 EM흙공던지기.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이 중점 진행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캠페인 및 환경홍보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였다.

2. 소유역거버넌스 사업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은 대청호로 직 유입되는 가당천과 남대천이 선정되었으며 마을 대상으로 하천 중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3마을 (내동마을, 하굴암마을, 하장백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천변 쓰레기 투기장소, 소각장소를 주민들과 말끔히 정리하고 수목 식재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소각 방지를 막기 위해 주민들과 노력하였고, 특히,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습관을 강조하며 의식 개선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3 구량천 맑은 물 만들기 사업

무주 네트워크와 간사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생태 보호를 위한 가시박 제거와 주민 환경교육,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간사단체 회원들과 수년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함께 땀 흘리며 활동하면서 회원 간 유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두 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무주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깨끗한 수질, 건강한 생태를 위해 나아가겠다.

금산 네트워크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올해 금산은 비가 잘 오지 않고 유난히도 뜨겁고 더웠던 여름이었다.

이제는 한층 높아진 파란 하늘에 흰구름이 더없이 깨끗해 보이는 계절이다.

25년도 금산네트워크는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단체인 자연보호협회 중심으로 진행한 금강 일원의 쓰레기줍기 및 환경정화 활동과 금산네트워크 주관 단체인 정심회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한 생태교란종 가시박제거활동 그리고 회원마을 중심으로 진행한 깨끗한마을만들기 활동등 계획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산고등학교 생태환경동아리 ‘공존’은 학교 주변, 대둔산 주변, 천내습지등에서 정화활동 및 생태탐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지난주에는 ‘테라리움 생태수업’을 진행했다.

테라리움 만들기는 생태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었다.

유리 용기 안에 작은 식물과 흙, 자갈 등을 이용해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계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라리움은 닫힌 용기 안에서 식물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용기 안의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응결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물의 순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과정을 통해 산소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테라리움만들기는 생태계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옥천 네트워크

옥천네트워크 “깨끗한 서화천 만들기”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2025년 옥천네트워크의 사업은 대청호수변환경정화활동, 선진지견학, 깨끗한 서화천만들기, 안내천 소유역거버넌스, 대청호수중정화활동으로 진행했다.

깨끗한 서화천만들기는 옥천하감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4회 진행 예정이다.

1차는 6월에 하천감시단 및 이사진들과 함께 옥천장터 및 서화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쓰레기 300L를 수거하였고, 하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서화천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2차는 7월에 월전리주민들과 하천감시단들과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전리 마을과 서화천 주변 쓰레기 500L 수거하여, 마을의 생활쓰레기 및 분리수거와 함께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진행 완료. 총 4회 중 2회 진행했으며 총 수거량은 800L이었다.

하천감시단 스스로 참여하여 서화천 수질상태가 좋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하천감시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회는 하반기에 진행예정이다.

영동 네트워크

더운여름을 무사히 보내며~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에서는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동안 환경교육 위주로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6월중순부터 7월에 걸쳐 감꽃천사봉사단, 영동지역아동센터, 묵정지역아동센터, 심천면 새마을협의회, 영동읍 하가리마을, 상촌면 새마을협의회를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에코백 꾸미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회신도 들려오니 보람차다.

회원들과 함께 서천 국립생태원 견학도 다녀왔고, 4회의 정화활동 중 1회를 남겨놓은 상태다. 하반기

에는 정화활동 및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계획이다.

보은 네트워크

주민과 회원이 함께 지킨 하천, 보은네트워크의 약속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맑은하천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마을인 성족리마을과 북실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하천 정화활동과 농약병정리를 진행했다. 마을주민분들께서 내 집처럼 깨끗하게 정화활동을하고 나니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쓰레기분리배출 및 친환경제품쓰기 등 환경실천으로 내집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실히 예년에 비해 하천주변에도 쓰레기가 현저히 줄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분들과 환경연합회원, 하천감시단원들의 꾸준한 정화활동과 환경실천에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군에서의 불법쓰레기 단속과 현수막 홍

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은네트워크가 되겠다.

대전 네트워크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담당 : 대전YMCA)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도농교류활동을 다녀왔다. 7월 4일에는 영동 양강면 구강리로 자두수확체험과 직거래 및 체험활동을, 8월 8일에는 영동 심천면 단전리로 복숭아수확체험과 직거래, 영동문화탐방 등을 진행했다.

평소에 대청호보따리, 대청호직거래장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생산자들을 생산지에서 직접 만나 더욱 더 특별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농산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 친근함까지 느껴졌다. 특히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쁘게 열린 복숭아나무를 만나 보니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맛있는 비빔밥까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수확을 도와드릴 일손들이 많이 찾아갔으니 많은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뜨겁고 더워서 많은 도움이 못 되어 아쉬웠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또 찾아가야겠다. 여러분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꼭 한 번 참여해 보길 바란다. 농산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청주 네트워크

함께한 손길로 더 깨끗해진 대청호 마을 이야기

글_**육정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뜨거운 여름에도 청주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를 지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7월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공모사업 세부계획 등 여러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졌다.

같은 달, 묘암리에서는 청주 YMCA와 함께하는 농촌체험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50여 명의 참여자들이 모여 양파를 수확하고 마을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며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청주YMCA에서는 묘암리 이장과 마을 주민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식자재와 후원물품을 지원하여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노현1리에서는 '초록마을 씨앗뿌리기'가 6월부터 7월까지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주민 20명이 매주 모여 환경교육을 듣고 로컬푸드 요리도 함께 배우며 마을의 정을 더욱 두텁게 나누었다. 특히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 요리활동으로 기후변화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생활 속 실천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괴곡리에서는 3월부터 꾸준히 쓰레기 실명제를 이어가고 있다. 30여 가구가 참여해 자신이 버리는 종량제 봉투와 분리배출 비닐에 이름을 쓰고 매주 배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혼합배출이 확연히 줄고, 쓰레기 태우는 일도 사라졌다고 한다. 8월 18일에는 마을 주민 20여명이 모여 생태보전와 물환경교육을 듣고, 시원한 수박을 나누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었다. 청주네트워크의 마을사업이 환경을 가꾸는 소중한 발판이 되고 있다.

구룡리에서는 환경리더들이 앞장서 마을의 오염우심지역을 살피고, 정기적으로 하천과 길가를 청소했다. 특히 가뭄으로 30년만에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의 묵은 때를 벗겨내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주민 20명이 모여 환경교육을 받고 직접 천연비누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3월 7일에는 노현1리, 괴곡리, 구룡1리, 묘암리 네 개의 마을주민 100여 명이 함께 대청결운동을 펼쳤다. 농한기를 맞아 하천변과 마을길을 정성껏 청소하며 무려 5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올 하반기에도 한번 더 대청결운동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기대가 된다.

이렇듯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모여 대청호와 마을은 날마다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은 천안 병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가 고유한 주제를 가지고 개별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적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며 추진된 주민 참여형 생태 보전 사업이다.

본 사업은 병천천이라는 지역의 주요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시민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 생태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5 상반기 사업 진행 현황은 계획 대비 순조로운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 병천천 수생태 모니터링 및 하천 감시활동 4회, 2) 물사랑 시민양성 교육 및 캠페인 20회, 3) 물사랑 실천 환경교육 7회, 4) 병천천 소유역 거버넌스 운영 및 깃대종 홍보 4회, 5) 네트워크 참여 단위 운영회의 3회 진행되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하반기에도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환경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청호 뉴스 & 뉴스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충북 옥천군은 환경부가 이 지역 생태자원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를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3년(2025~2027)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21년 5월, 대청호 안터지구를 3년(2022~2024년)간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대청호 안터지구는 1980년대 대청댐 건설 당시 일부는 수몰됐고, 일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은 안터지구 주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점을 환경부의 9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안터지구 생태관광은 석탄리 반딧불이 생태여행, 오대리 마을배 타기·생태밥상 만들기, 안내면 아르아르 농장 체험, 안남면 제비집 탐조·마을길 걷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생태관광은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즐기는 여행을 말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대청호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연종영 기자

대청호에 쏘가리 치어 3300여마리 방류

청주시는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일대에 전염병 검사를 마친 쏘가리 치어 3300여마리를 방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달 미원면 달천 방류에 이은 두 번째로, 토속 어종이 외래어종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몸길이 7cm 이상 쏘가리 치어를 방류했다.

쏘가리는 담수에 서식하는 농어과 어류의 대표 어종으로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횟감과 매운탕으로 널리 이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한다.

또 쏘가리는 육식성이 강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토속 어종을 잡아먹는 생태계교란종 배스나 블루길 등을 포식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 및 생물자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는 매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진행해 꾸준히 개체수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쏘가리를 포함해 올해 방류한 물고기는 총 1만7200여 마리다.

9월 말에는 대청호에 동자개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류한 쏘가리가 성장해 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 임은수 기자

다시 폭염...대청호 녹조 '비상'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녹조로 뒤덮이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현재 충북 옥천군 대청호 상류는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녹조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다. 20㎞ 가량 떨어진 보은군 회남 수역도 녹조가 확산하면서 호수 중앙까지 연둣빛으로 변했다.

녹조는 식물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이다. 수온이 25~35도일 때 왕성하게 번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는 냄새물질과 독소를 생성해 수돗물의 맛을 떨어뜨리거나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청호 문의.회남 수역 조류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문의.회남 수역의 1㎖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경계 단계 발령 기준(1㎖당 1만세포)을 2주 연속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는 수온이 25~35도일 때 왕성하게 번식한다. 남조류가 2주 연속 1000세포를 넘어설 경우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를 넘어서면 '대발생'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질소 등 영양염류가 많아진 상태에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조류증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금강청은 설명했다.

대청호 추동 수역에는 아직 조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관심' 단계 기준인 1000세포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대청호 문의·회남 수역 수질 분석을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대청호 4개 정수장 심층 취수 및 고도 정수처리와 함께 조류독소 분석 주기 역시 주 2회로 확대한다.

금강청은 관계 기관과 조류경보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녹조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한 폭염으로 대청호 수온이 높아져 유해 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청호 지키고 탄소도 줄인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하나로 묶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대전 동구에서 본격화된다.

대전시 동구는 12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신경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고창섭)와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탄소중립 공동체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절수·절전 습관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친환경 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구는 참여 가구 발굴과 행정 지원, 환경캠페인 기획·운영을 책임지고, 한국전력은 절수형 변기와 절전형 LED 조명을 보급해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수요 조사, 물품 보급, 주민 교육, 공동 캠페인 등 현장 활동 전반을 맡아 탄소중립 문화를 널리 퍼뜨릴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는 대전 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문화를 대청호 인근 마을부터 확산시켜 기후위기 대응과 수질 보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고창섭 이사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이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상수원 보호'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환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LED 조명과 절수형 변기 보급은 초기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 캠페인과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생활 패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출처 :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청주YMCA, 대청호 농촌 체험·봉사 활동

충북 청주YMCA는 7월 봉사의 날을 맞아 문의면 묘암리 마을에서 농촌 체험·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에서 생산한 양파 15㎏망 50개를 구입하고 마을 주변 곳곳을 청소했다.

최충진 이사장은 "농촌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 : 뉴스1 이재규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무주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이 지난 6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30분 무주군태권도시범단과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반디 입장식'과 개막행사, 그리고 낙화놀이와 음악분수, 레이저쇼,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반디 빛의 향연'으로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에서 등나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 이어진 '반디 입장식'에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상징인 '또리와 아로', 무주군민으로 구성된 취타대를 선두로 6개 읍 · 면 주민들과 춤아리,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숟가락 난타팀 등 3백여 명이 함께 하며 축제를 즐겼다.

개막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정세균 상임고문(전(前) 국무총리·전(前)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펼쳐진 산의실 솟대 세우기를 비롯해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생태탐험, 남대천 생명 플러스(치어방류, 소원 비행기 날리기)등도 호응을 얻었으며, 사랑의 다리 위에서는 물벼락 페스티벌이 펼쳐져 한낮의 더위를 씻어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2025 아시아친환경축제(세계축제협회 선정)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생태환경축제 정체성 확립, △방문객 편의와 집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변화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산군
금산군, 2025년 하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안전한 골프장 관리와 환경보호 강화

금산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토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과 연못 시료를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다.

검사 항목은 클로로탈로닐, 포스티아제이트를 포함한 25종의 농약 성분으로 잔류 농약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오염 방지, 골프장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은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농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골프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이원면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7강

9월 9일 월요일 늦은 5시 이원면 다목적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원면 주민리더 역량강화 교육' 7차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모델, 상상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삶의 질은 슬리퍼 끌고 다니는 생활권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마을을 살만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

내가 행복하나?는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즉 내가 어떤 마을에서 성장했느냐이다.

좋은 추억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시작하고, 결국 돌아온다.

주민자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것들을 다 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슈들을 해보자. 전체적인 계획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 조례를 바꿔서라도 협치회의를 해야 한다. 협의권을 가져야 하고, 민관협치회의가 중요하다.

자치를 하고 혁신해서 지역을 변화시켜야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
'기후정의로 대전을 잇다' 간담회

9월 10일 '기후정의로 대전을 잇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27일 대전기후정의행진 사전행사로 대전의 기후의제를 찾아보고 발굴하는 자리였습니다.시민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전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해결 과제를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셨고, 그 결과 10개의 지역 기후정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에너지, 생태환경, 공공의료, 자치/참여, 노동, 장애/인권, 동물권/채식, 먹거리, 무기산업, 공공교통 등작년에 비해 시민들의 요구가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이는 대전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대전 고유의 기후정의 의제는 정리 과정을 거쳐,오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리는 '927 대전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이 자리에서 대전시에 요구안을 직접 전달합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산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
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
대전YMCA,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동구 신촌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충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 위하여 월별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세요

1월 객토, 퇴비할 시기
- 퇴비 후엔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2월 논·밭갈이를 준비할 때
- 논 물꼬를 계속 막아두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3월 논갈이, 논물 가두기 할 때
- 밭을 간 후에는 바로 비닐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볏짚 거적을 깔아 주세요.

4월 모를 기를 시기
- 논을 갈고 물을 가두세요.
-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는 작은 흙웅덩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5월 모내기를 시작할 때
- 밑거름을 주시고, 병충해 방제도 해주세요.
- 써레질 후 흙탕물 가라앉히기 잊지 마세요.

6월 벼 모내기 및 보리 수확
-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량은 줄이고, 물을 뺄 때 농약과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7월 논에 물 걸러 대기
- 병충해 대비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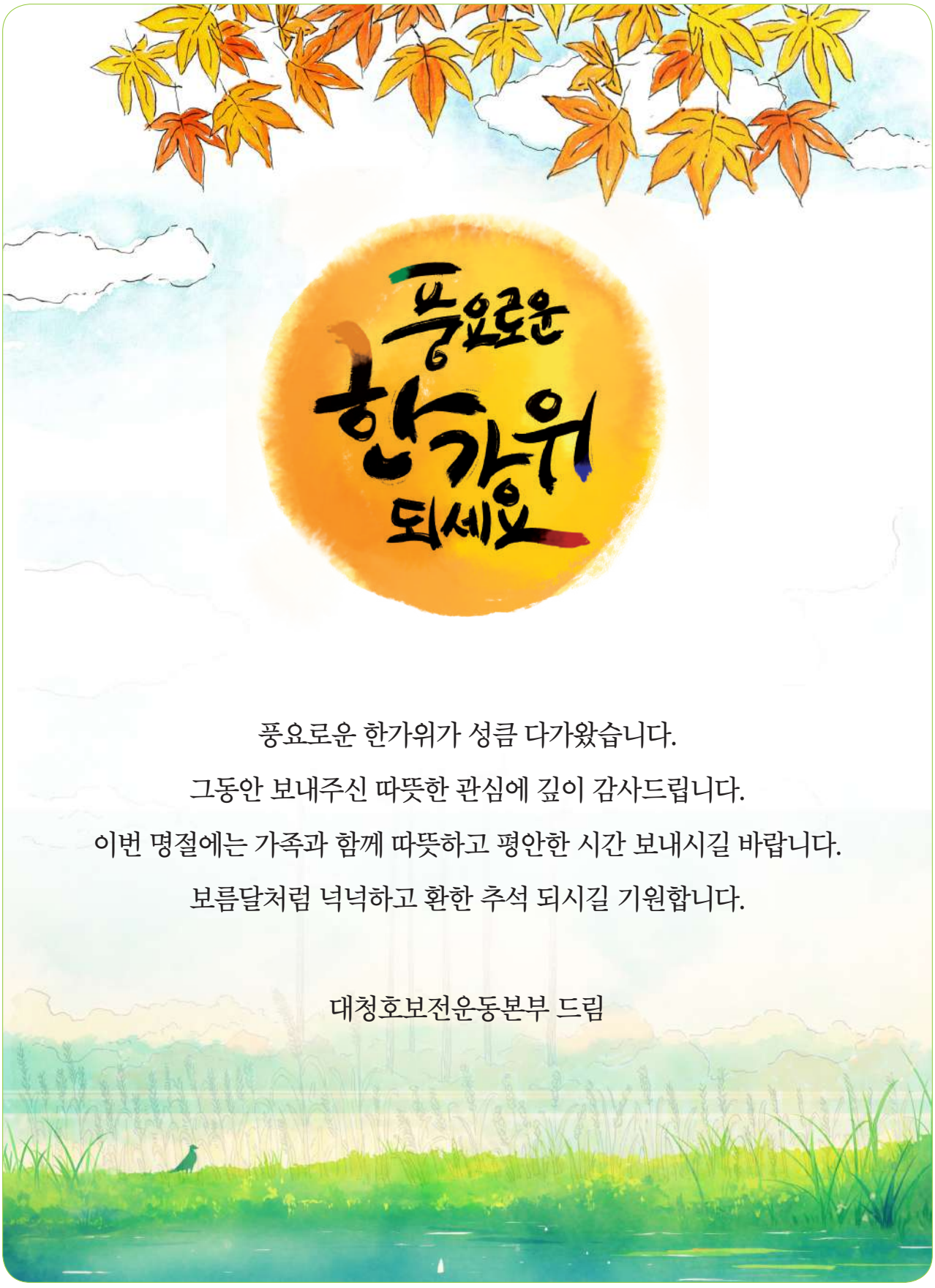
8월 벼 이삭이 팰 때
- 태풍과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 물꼬관리가 필요합니다.

9월 벼가 익어갈 때
- 수확을 준비하여 물을 빼 주세요.
- 밭작물 잔재물을 밭에 넣어 가을 가뭄에 대비하세요.

10월 벼와 과수 수확의 시기
- 수확한 논과 밭에 볏짚을 깔고 논갈이, 밭갈이를 해 주세요.
-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 주세요.

11월 한 해 농사가 끝난 시기
- 물꼬 관리 계속해 주시고, 과수원의 배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12월 철새가 찾아올 시기
- 철새 AI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풍요로운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환한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드림